

‘생명공학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김효재 대학원생, 대한민국 이끌 연구자 선정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선정... 3천만원 지원 ‘카본나노파이버 이용 장생체칩’ 연구 개발

김효재 대학원생(바이오나노시스템 공학과·지도교수 오종현)이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세계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2018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에 선정됐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국내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및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동안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높여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에 따라 김효재 대학원생은 1천만원 이내의 등록금과 2천만원의 학술활동비 등 3천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2년 동안 지원받는다. 2년 후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1년의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김효재 대학원생은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을 통해 '카본나노파이버(carbon-nanotube)를 이용한 장생체칩(gut-on-a-chip) 기반 약물 테스트 플랫폼 개발'이라는 주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연구과제의 세부 내용은 장 질환 관련 치료법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고 신약개발 및 약물 검사 플랫폼을 위한 카본나노파이버(carbon-nanotube) 기

반 소장의 용털을 모사한 것-마이크로 칩(micro chip)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학 관계자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은 김효재 대학원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과학자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본 연구에서 바이오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는 생명공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재 대학원생은 "이번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으로 안정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선택과 집중으로 질 높은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아낌없는 지원으로 자발적인 수업 전문성 강화와 개선 노력”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HINTs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가 '2018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HINTs (Howon Initiative for New Teaching competencies)'를 10주간(30시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입교원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HINTs는 2016년부터 실시해 온 호원대만의 대표적인 교수법 프로그램이다. HINTs 프로그램은 7주 오프라인 강의와 3주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진행하며, 효과적인 교수(teaching) 방법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지식 제공 및 수업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상황과 대처법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KOCW에 탑재되어 있는 강의를 수강하고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 학생과 직접 마주하는 교수의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2016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신입교원 및 교수진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교수님들이 강의 시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도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은정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유아교육과)은 "총장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수업개선 노력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18학년도 2학기 중에 '티칭포트폴리오 개발지원' 및 'K-MOOC 활용 교육'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2018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HINTs'를 오늘부터 운영한다.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 '가람 이병기 시조 교실' 인문체험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HK+지역인문학센터와 인문학연구소, (재)익산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가람 이병기 시조 교실' 인문체험이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가람 이병기 시조 교실'은 익산 출신 시조 시인으로 활동했던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과 사상을 알아보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인문체험강좌다. 인문체험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원광대 송산기념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특히 강좌 마지막 주에는 백일장을 진행해 입상자에게 소정의 상금도 지급 예정이다.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람 이병기 선생의 삶과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직접 시조를 창작해봄으로써 시조창작능력 확대 및 인문학적 소양 능력 함양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30명이 정원인 이 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또는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 인문학연구소(850. 715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도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불법 주정차 집중 점검

전북도교육청이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단은 이 기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 이수 점검·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의 활동을 벌인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점검 결과를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각 학교장은 학교 주변 안전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에 직접 참여해 안전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주변의 각종 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미흡한 교통시설들은 지자체 및 경찰서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모두가 값지고 뜻깊은 원정”

전주대 산악부, 키르기스스탄 데케토르봉 등정

전주대학교 산악부가 해외원정 등반에 나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데케토르봉(4,441m), 우치텔봉(4,540m) 등정에 성공했다. 4일 전주대에 따르면 산악부의 이번 해외원정 등반은 안성준(경영학과 4학년)씨를 등반대장으로 재학생 양우영(수학교육과 4학년)씨, 한제현(컴퓨터공학과 4학년)씨, 장해지(사각디자인학과 3학년)씨와 지도교수 권용석 교수(토목환경공학과), 신소라 교수(경찰학과) 및 졸업생 등 총 12명이 참여했고, 정상 등정을 성공하는 기쁨을 얻었다. 특히, 우치텔봉은 직벽과 비슷한 급경사의 돌부더기 산길로 전문 산악인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코스이다. 전주대 산악부는 이번 원정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설악산과 지리산, 대둔산 등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다. 전주대학교 원정대는 지난 8월 12일 출국하여 14일 3,200m 리프트 BC(Base Camp)를 시작으로 17일 코로나봉(4,850m) 등정에 시도했으나 기상이변으로 4,600m지점에서

베이스캠프로 돌아와야 했다. 재정을 마련한 전주대학교 원정대는 22일 두 팀으로 나누어 데케토르봉(4,441m)과 우치텔봉(4,540m) 등정에 나섰고 약진교투 끝에 두 봉우리 정상에 올랐다. 안성준 등반 대장은 "산악부 창립 40주년을 맞아 졸업생, 재학생, 지도교수가 함께 원정대를 꾸려 더욱 값지고 뜻깊은 원정이었다"라며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희생했기에 성공적인 등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주대학교 산악부가 이번 계기로 더욱 더 발전하여 해외원정등반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며 "해외 등반을 이끌어준 산악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산악부는 2015, 2017년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 일원으로 히말라야 탐사에 참여했으며, 특히 이번 원정등반은 단일 대학산악부 팀으로 이루어진 이례적인 원정이었고, 앞으로도 해외 원정등반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하는 '2018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국 시·군·구청장 25명, 시·도지사 3명, 교육감 2명 등과 함께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실천본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을 분석해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재원조달방안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김승환 교육감 3기 공약은 학부모와 교사, 교육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실행 가능성과 예산대책 등을 고려해 최종 공약을 선정했으며 교육감 제1기 와 제2기 때 추진해왔던 전북 혁신교육을 완성하고자 했다.

5대 주요정책은 ▲첫째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둘째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셋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넷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다섯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로, 이에 따른 10대 정책과 주요 과제들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 혁신교육을 통해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즐거움이, 학생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